대표프로그램

무등산 속 원효사 이야기

활동장소	무등산생태탐방원일원
소요시간	당일형
참가대상	성인 30명 내외
참가인원	15명/해설사

활동목표	•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불교의 이야기를 쉽고 다양한 이야기로 전달하며,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소개한다.
준비물	• 무선 송 수신기, 의약품
유의사항	• 야외 프로그램 시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 • 야외 프로그램 시 구급약품 소지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당일형	도입	• **인사**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프로그램 일정 소개 –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생태탐방원 소개	10분
	전개	• **사찰에 들어가려면** – 사찰입구에서 볼 수 있는 문(門)에 대한 이야기	10분
		• **원효사 이야기** – 원효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부도전, 창건기, 문화재, 전각 등)	35분
		• **화암루에서 경관보기** – 화암루의 의미와 이곳에서 바라본 의상봉, 윤필봉, 투구봉 등의 자연경관	25분
	마무리	•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국립공원**	10분

시나리오	[당일형] **국립공원 소개 및 일정안내** 안녕하십니까.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무등산 국립공원에 있는 원효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주위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하며 함께 할 무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오늘 일정은 이곳에서 출발하여 원효사와 그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약 1시간 30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국립공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곳 무등산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며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입니다. 또한 다양한 생물종, 문화유산의 보고, 빼어난 자연경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휴식 공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을 자원, 동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왜 중요한 곳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고성방가, 쓰레기를 버리거나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참여유도: 자연훼손 행위, 비지정 탐방로 이용, 야영 및 취사, 흡연 등 답을 유도하고 보충설명) 국립공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계신 무등산은 어떤 곳일까요?(참여유도) 무등산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분도 있을텐데요.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 화순에 걸쳐있는 광주·전남의 진산입니다. 예부터 무돌, 무정산, 무덤산, 서석산등 부르는 이름이 많았으며, 정상을 중심으로 곳곳에 펼쳐진 서석대, 입석대, 규봉 등 웅장한 암석의 아름다움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병이나 역사적으로 많은 선조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으며,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입니다. 이상으로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무엇을 지켜야하는지와 무등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찰에 들어가려면



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은 조금 후 만나게 될 사찰인 원효사의 일주문 앞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들어갈 때 대문을 통해 들어가듯이 사찰의 문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찰에서 일주문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참여유도)

흔히 지붕을 얹은 일반 건축물이라면 네 개의 기둥을 사방에 세우고 지붕을 얹는 것이 원칙이나 일주문은 사방이 아닌 한 줄로 나란한 두 개의 큰 기둥만으로 지붕을 지탱한 독특한 양식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불가에서는 일심(一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성한 곳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곳 원효사 일주문 같은 경우엔 워낙 크다 보니 양쪽에 보조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들어섰던 문인데 조금 다르게 다가오십니까?(참여유도)

다른 사찰엔 일주문 다음에 수문장 역할을 하는 금강역사를 모시는 금강문이 있고, 아마 여러분이 많이 봤을 불법의 수호신인 사천왕을 모신 사천왕문, 마지막으로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하는 문으로 불이문이 있습니다.

이곳 원효사는 일주만 보실 수 있고 불이문 역할을 하는 회암루라는 곳으로 잠시 후에 이동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에만 몰두할 뿐, 사찰에 숨겨진 의미나 스며있는 정신을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잠깐이나마 이곳 원효사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참여유도)

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곳 일주문을 통과하여 부처의 세계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사 이야기



이곳은 어디일까요?(참여유도) 여러 개의 부도와 탑비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부도는 무엇이고 탑비는 무엇일까요? (참여유도)

네, 불교에서는 승려의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사리. 즉 유골을 묘탑에 안치하는데, 이를 부도 또는 승탑이라고 부릅니다. 탑비는 이러한 부도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승려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일생의 행적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탑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효사는 창건기나 창건연대를 뒷받침할 만한 고증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어 원효사의 옛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의 금동불, 기와조각과 고려시대 말 조선초기로 추정되는 부도와 조선후기에 조성된 부도, 그 밖에 석탑조각 등이 여기저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원효사 경내에는 모두 4기의 부도가 있습니다. 그 중 1960년대의 춘곡거사 송화식의 부도를 제외하고는 고려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조성된 것입니다. 조성이 된 시기가 달라 재질이나 생김새 등이 달라 보입니다. 현재 이곳은 아니지만 원효사 동북쪽엔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동부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효사 경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어디일까요? (참여유도) 한자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읽어볼까요?(참여유도)

네, 회암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효사는 천왕문, 불이문 등이 없기에 일주문만 지나면 대웅전 앞까지 이 회암루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암루를 통해서만 경내로 들어갈 수 있기에 키가 큰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야 하며 아무리 신분이 높은 고관대작이라도 이곳에서는 말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누구에게나 평등한 부처님 앞까지 권위를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건물인 것입니다.

그럼 원효사 회암루를 통해 경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처럼 넓은 무등산자락에 원효사가 이 자리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참여유도)

원효사는 아마 사찰이름 때문에 원효대사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참여유도) 네, 원효사는 창건연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신라의 지증왕이나 법흥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며, 그 뒤 삼국통일을 전후 한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이곳에 머물면서 암자를 개축한 뒤 원효사, 원효당, 원효암 등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설로는 고려 충숙왕 당시의 이름 있는 화엄종승이 창건한 뒤 원효대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원효암이라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럼 경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참여유도)



정면으로 보시면 6.25 때 소실되었다가 1980년경에 세워진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을 해체 복원하기 위해 국립광주박물관 조사단이 발굴, 조사를 하던 중 뜻밖의 보물급 유물이 쏟아져 나와 현재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 원효대사의 영정이 있는 개산조당, 지장보살을 모신 명부전, 산신각 역할을 하고 있는 성산각 등의 전각과 중앙으로 지장보살과 나한상등과 그 외 여러 곳의 건축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잠깐 무등산 전체를 느낄 수 있는 회암루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화암루에서 경관보기



이곳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지나왔던 회암루입니다. 먼저 주위의 경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참여유도)

이곳에서는 무등산 정상과 그 주위의 봉우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감상을 하신 후 편안히 앉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무등산의 편안함이 느껴지십니까? (참여유도)

회암루에 앉아 등급이 없는 무등산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뉘우치라는 뜻인가 봅니다. 회암루는 불전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모든 법요식은 이곳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찰의 중심 불전인 대웅전 등이 대중을 모두 수용할 정도로 넓지 못하다는 데도 원인이 있지만, 중심 불전을 마주 올려다 볼 수 있는 누각에서 법요를 베푸는 옛 방식의 하나로서,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회암루같은 누각에서 예불을 하고 설법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누각이 있는 절은 대부분이 이곳 원효사처럼 불이문(사찰의 본당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 없으며 회암루는 불이문의 기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몇 개의 봉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선 무등산의 정상인 천, 지, 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천, 지, 인을 찾아볼까요(참여유도) 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윤필거사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오는 의상봉과 윤필봉이 있습니다. 바위의 모양이 투구의 모양이 닮았다는 투구봉도 있습니다. 모두 눈에 담으셨습니까?

이렇듯 회암루는 무등산을 조망하며 세상 시름을 잊기에 좋은 곳이기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계십니다.

마무리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원효사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주위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말 씀 해주시

	겠습니까? (참여유도) 해설을 들으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나 자연이 새롭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참여유도) 오늘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국립공원을 아끼고, 지키는 탐방객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해설을 맡은 000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